시 론

'개천'을 망각한 나라

탁 인 석
광주문인협회 회장

대한민국의 10월은 가는 곳마다 문화가 바다처럼 넘실거리는 문화의 계절이다. 그 중에서도 3일은 하늘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여한 개천절이다. 단군이 4334년 前 왕검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고 즉위한 날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생일인 셈이다. 누구나 생일이 되면 무심상 지나치지 않는다. 생일상을 차리고 탄생의 의미를 새기고 그에 맞는 축하를 곁들인다. 개천절이 대한민국의 생일이라면서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지나간다. 국가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날이 가장 희미한 별 볼일 없는 날처럼 바뀌고 있다. 태극기 달기마저 가뭄에 콩 나듯 한다. 필자가 사는 아파트촌에 태극기 게양세대를 살폈더니 과장 없이 우리 집뿐이었다. 순간 드넓은 광야에 나 홀로 서있는 느낌이었다. 태극기의 상징성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건국 기념일에 보는 광경은 이리도 씁쓸하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우리 민족의 평화를 상징하는 모습이고 태극은 음양으로부터 창조된 우리 민족의 창조성을 나타낸다고 한다. 4괘는 하늘과 땅·물과 불을 상징하며 봄·여름·가을·겨울 등 사계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한다. 3월1일 만세운동이 태극기 없이 가능했겠는가. 8·15광복절이나 6·25한국전쟁, 5·18민주화운동 또한 마찬가지가 아닌가.

'개천'에는 단군이 계셨고 그 상징을 태극기라 할 수 있다. 우리 '애국가'에는 다소의 시비도 붙지만 태극기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을 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수없이 많은 시련과 전쟁이 있었다. 그 위기 때마다 극복한 저변에는 단군의 민족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근세 일본 침략에 맞선 민족의 저항정신에는 단군정신을 전제한 '개천'이 있었다. 개천과 단군과 태극에는 남북이고 동서고 이념의 구분이란 존재할 수 없다.

개천절 날, 필자는 광주의 단성전(檀聖殿)을 찾았다. 광주의 단성전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단성전은 상무지구 무각사의 뒤편에 위치한 여의산(如意山)을 이르는데 바로 그 산의 산책길 중간에 가파르게 올려 세운 계단의 꼭대기에 꾀죄죄한 차림으로 우리를 만난다. 그 입구 안내판에는 '1972년 상무대 안에 국조이신 단군왕검의 뜻을 기리기'위한 성전이라 새겨져 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로 삼았다는 '홍익인간 제세이화'로 나라를 세운 1세 단군왕검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다고 되어있다. 단성전에 들어서니 모인 사람은 불과하면 20명 내외였다. 낡은 돗자리와 찢어진 창호지로 제를 올리는 제관 이하 참석자의 모습이 숙연했다. 누구 하나 알아줄 리가 없지만 개천의식이 엄숙하게 봉헌되는 순간이었다.

원근 간에 가벼운 것에 길들여진 세상이다. 무거운 것, 의식적인 것은 가부간에 거부되고 있다. 민생이 급한데 역사 따위가 대수냐는 식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금년 광복절에 항일무장투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으로 봉환되는 장면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먹먹했다. '나라가 불행한데 먹고사는 일만 하겠는가'라는 홍장군의 소싯적 기록이 나온다. 장군의 초인적 강인함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그분이 지닌 역사의식, 뿌리의식 외에 다른 딴이유란 발견할 수 없다. 잃어버린 조국의 역사를 많이도 안타까워했던 분이 홍범도 장군이 아니었던가. 1911년 계연수 선생이 어려운 여건에서 목판으로 '환단고기'를 출판할 때 홍범도, 오동진 등이 거액의 자금을 댔다고 한다. 그 븐들은 형편이 좋아서 그리했겠는가. 역사회복을 통한 민중의식의 고취를 염두에 둔 때문이리라.

개천절은 대한민국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처음의 생일이다. 어찌 의미가 가볍다 하겠는가. 역병 때문에 잠시 주춤할 수는 있다지만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우뚝한 선진국이다. 필자가 잠시 거주했던 고창군에는 연중 축제만도 무려 12개나 된다. 복분자축제, 모양성축제, 고추축제, 수박축제, 땅콩축제, 국화축제 등등. 조그마한 고을마저 이 정도인데 개천절을 망각하는 대한민국을 어찌 미래가 있는 나라라고 하겠는가. 지금의 현실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들 중 누구하나 '개천'의 의미를 언급하는 사람은 없다. 개탄스럽기 그지없고 이 같은 역사의 불행이 어디까지 흐르는 강물이라 할까. 이육사, 윤동주, 한용운, 이상화 등 우국시인에게 물어보고 싶으나 그들은 이미 입을 잃은 지가 오래되었다.

기 고

시월은 영암입니다

전 동 호
前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시월의 첫날, 땅이 열리는 인시의 끝입니다. 미명을 밝히는 불빛이 천황사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자, 갑시다.' 세 사람이 황금 일출을 보겠다며 하나가 됩니다. '월출산 같은 데가 없다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이여.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 마음의 평화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데도' 한 발짝 한 발짝이 내일을 열어가는 길이란 말씀입니다.

천황사 초입입니다. 잦은 가을비로 계곡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우렁찬 소리가 좋지만 바닥은 미끄럽습니다. 안전한 가마를 자청합니다. 어디서나 도구이고 싶습니다. 논에 가면 쟁기, 사무실에선 펜이 되고자 합니다. 작은 등불을 앞세웁니다.

'바닷가는 무슨, 여기가 최고네. 그냥 누워만 있어도 좋아. 이 소리를 들어봐. 야, 너무 좋다.' 바람폭포입니다. 물이 떨어지는 모습은 어둠에 가려 흐릿해도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휴대폰을 비디오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여'라던 복사꽃 할머니가 더 오르기를 주저합니다. 그렇다고 예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가시지요.

6시6분, 여명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책바위' 사진 한 장 찍고, 구름다리를 배경으로 또 찍고, 가파른 데크와 돌길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바람대, 육형제바위 전망대입니다. 잠시 숨을 돌립니다. 30분을 넘어서니, 해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깍깍' 까마귀 소리가 참새의 재잘거림을 대신합니다.

바람은 지나고 해는 커져갑니다. 도화 오름도 나타납니다. '봐라' 아직은 괜찮다, 시들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월출산은 늘 선물인데, 세계에 자랑해야 하는데, 팔아먹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이루겠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황봉으로 올라가야 할 시각입니다. 더 많이 보고 오겠습니다.

통천문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없네요.' 아니, 여기 넘으면 보일 거여. 그렇지, 봐.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경포대요' 벌써? 대단하십니다. '광주에서 네 시 쯤 넘어 출발했어요.' 금릉에서 오르신 분들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는 천황봉, 구름이 장관입니다. 시악바우, 구림, 읍안, 영보와 장암까지 다 가리었습니다. '저기가 백룡산' 손가락 사이로 희미한 풍광이 계속됩니다. '캬, 완전히 다 덥혔네. 이쪽에서 한 장만 찍어 주실래요?' 그 가치를 아는, 김천 코코호야 김아무개 작가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어도 이렇게 큰 기쁨으로, 선선한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옵니다.

하산길입니다. 바람대에서 동행할 분이 계십니다. "혼자 가시면 안돼요"라는 요청이 30분을 넘었습니다. 인내의 한계였을까요?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나무 이파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벌써 겨울을 준비하는 자연의 일입니다. 내게도'배 안의 밥알, 입 안의 말, 마음속 근심'까지 덜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월출산은 발길마다 큰 가르침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예부터 왕인, 최지몽과 최승우, 도선국사, 조선 의병, 정약용 유배길 등 숨은 이야기가 많고 기찬 묏길도 좋습니다. 그런데 경포대, 월남사지, 백운동원림 등 금릉을 돌아 도갑사까지는 아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연결하면 월하가도(月下嘉道)가 됩니다. 40여㎞를 걸으며 아담한 돌담 집에서 하루 이틀 쉬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월출산의 동석(動石)이 색깔을 더하는 가을입니다. 넓은 육해(陸海)가 금물결을 타는 그 안에서 사계절 밥맛이 좋은 쌀, 붉은 홍시 대봉, 송알송알 황토고구마, 매력이 넘치는 한우, 신비스러운 무화과, 하우스 안의 멜론, 딸기와 토마토까지, 그 맛과 향이 거듭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로 가는 풍요입니다. 그래서 시월은 역시 영암입니다.

목돌이의 교가대몽(敎家大夢)이 더 큰 꿈으로, 달빛도 반하던 월롱(月弄)의 발동기가 돌아가고, 종오(終吾)의 들소리가 범순이의 콤바인에 오르며 더불어 행복한 나날을 열어갑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명품으로 만들어야합니다. '생각나누기'가 필요합니다.

현장칼럼

리스펙 제대군인!

유 형 선
전남서부보훈지청장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적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을 국토방위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가와 국민에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사회로 돌아와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바탕으로 충분한 생활을 영위해야함이 당연하지만, 2015-2019년 5년간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57.5% 수준에 불과하다.

제대군인 취업률이 90%를 상회하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초라한 지표이다. 더욱이 군복무로 인해 원활한 취업준비가 불가능했던 제대군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는 사회로 복귀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가보훈처는 매년 10월 중에 '제대군인주간'을 지정해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대군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제대군인주간이 법정 기념행사로 격상돼 보다 내실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더 많은 제대군인들이 취업 등의 지원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제대군인주간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10월 5-8일 4일간 '리;스펙 제대군인'이란 슬로건으로 추진된다. 제대군인주간 동안 제대군인주간 기념식, 제대군인 영상공모전 시상식, 제대군인 일자리 '두드림(Do dream)의 날' 행사가 진행되고 제대군인에 감사를 표하는 대국민 영상 챌린지도 진행된다.

특히 '두드림(DO dream)의 날' 행사에서는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현장채용 실시와 진로 및 교육훈련 상담, 적성검사(MBTI 등), 창업 컨설팅, 이력서 작성 등의 지원을 병행하여 취업에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52조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해왔고, 이와 함께 군사력 또한 크게 향상되고 있다.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면 국방력의 강화는 반길 일이지만, 과연 물적 양적 증대만이 국방력 강화를 이끄는 해결책일까. 국방력을 키우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바로 보훈이다.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이 국토방위에만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값으로는 환산 할 수 없는 더욱 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번 제10회 제대군인주간을 계기로 많은 제대군인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해 가족들과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 진심어린 감사가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 더욱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해본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예사롭지 않은 SRT 호남선 열차지연 사태

SRT 열차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잦은 도착지연도 문제인데, 이에 따른 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때문이다. 특히 서울 수서-광주송정-목포 간 호남선의 사정은 더 심각한 수준이라니 분통이 터진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이 주식회사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T 열차 도착지연은 2016년 6건, 2017년 68건, 2018년 158건, 2019년 66건, 2020년 81건, 2021년 8월기준 127건으로 나타났다. 호남선은 2016년 12월에 개통한 첫해를 제외하면 2017년 12건에서 2021년 8월까지 44건으로 무려 4배 이상이다. 종착역 기준 전체 지연시간은 지난해부터 2분대를 돌파해 증가하는 추세다.

SR은 사유로 선로안정화 서행, 자연 재해, 열차 고장 등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합당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실상은 다르다. 공정거래위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승차권 환불 기준은 20-40분 미만 12.5%, 40분-1시간 25%, 1시간이상 50%로 최근 5년간 총 지급 대상은 15만4천403명 23억4천101만원 규모이나 미지급액이 8억1천445만원으로 34.8%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3명 이상이 못 받은 셈이다.

고속철도 이용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민들은 서비스 질 저하를 걱정하고 있다. 해마다 그 불만이 쌓여가는 것이다. 특히 도착지연 건수만 보더라도 호남선이 경부선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별은 아닌지 의심을 사기에도 충분하다. SR은 출범 초기보다 급증한 현재의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해야 한다. 지금대로라면 앞으로 열차지연 역대 최다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열차 도착지연은 승객과의 신뢰로 직결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 사례가 발생한다면 적극 배상을 안내해야 한다. 요청이 있을 때까지 형식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되겠다. SR은 차별화된 철도서비스를 표방하며 출범해 중점 전략과제로 '고객 시간가치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대응을 촉구한다.

코로나 구급출동 역시 크게 증가했다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방안인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당장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일상과 방역의 조화가 가능할 것인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다.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연휴까지 지역사회 곳곳에서의 집단감염은 계속되며 위험을 키우고 있다. 광주는 직업소개소와 건설현장, 음식점 등 관련 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전남에서는 서울 수도권 및 타지역 접촉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당국은 이번 주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봐야 정확한 흐름을 알 수 있다면서 당분간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개개인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코로나가 급격히 전파됐다. 소방본부의 구급출동도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광주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9월까지 구급활동 건수는 21.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출동은 5만2천339건, 이송 인원은 3만5천673명에 달한다. 코로나와 관련해선 확진자 2천531명, 고열과 기침 등 의심환자 4천729명, 예방접종 781명, 기타(학생 및 해외입국자 등) 2천735명으로 모두 1만776명을 병원과 격리시설에 이송했다. 소방본부는 명확한 통계관리와 분석 자료를 정책 수립에 활용, 선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글날 코로나가 주춤한 것에 대해 의미를 둘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이달 들어 2주 연속 연휴에 이동량이 크게 증가한 만큼 살얼음판과 같은 국면으로 진단한다. 당국은 이미 5천명 안팎에 달할 것이란 엄울한 전망까지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할 때인 것이다.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추가 접종을 하는 이른바 '부스터샷'이 시작됐다. 또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토록 기다렸던 일상 회복의 시간이 바짝 다가섰다. 조금만 더 인내해야 하겠다.

메타버스 시대, 문화예술이 가야 할 길은

취재수첩

최 명 진
(문화부 기자)

문화계에도 AI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2021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이 지난 7일 '회복 가능한 도시, 지속가능성에서 메타버스까지'라는 주제로 비대면 진행됐다.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메타버스'였다.

'메타버스 도시 속으로'라는 제목의 세션2는 분홍색 자켓을 입은 김영미 동신대 교수 아바타의 사회로 문을 열었다. 넓은 들판 위 마련된 강의장에는 저마다 개성을 지닌 다양한 모습의 캐릭터들이 하나 둘 입장했다.

참여자들은 강의 중간 중간 오른쪽 하단의 박수 아이콘을 눌러 발제자를 향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아바타'를 활용해 실제 현실에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상균 강원대 교수는 "대부분 도시가 20-30년 이내에 소멸하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공간도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면 밀집된 도시의 한계에서 벗어나 더 넓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는 홀로그램 극장, 미디어 338 등 미디어아트 체험관 운영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유형의 문화예술이 곳곳에서 생겨나는 추세다. 현대사회에서 '메타버스'가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이유다.

일찍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이름을 올린 광주가 진정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기존의 미디어아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한다. 새로운 가상공간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발굴하려는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광주만의 고유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CMYK